

#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 '첫 삽'

### 시, 착공식 가져... 내년 10월까지 복합환승장·통합관광센터·공영주차장 등 조성

전주시가 새로운 교통 중심지이자 동부권 관광의 거점이 될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전주시는 8일 전주역 옆 옛 농심창고 부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지역자생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사업의 착공식을 가졌다.



전주시가 새로운 교통 중심지이자 동부권 관광의 거점이 될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이날 행사는 사업추진 경과보고와 시공사 대표의 공사개요 설명, 우범기 전주시장의 기념사,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의 축사, 착공 퍼포먼스(시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전주역세권 혁신관광 소셜플랫폼 조성사업은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 인근에 시의·고속버스터미널과 주차장, 관광안내소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교통·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곳에 들어서게 될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은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시설인 만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공영주차장 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전주역 통합관광센터 신축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은

오는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국비 56억 원과 도비 81억 원, 시비 120억 원 등 총 257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5472㎡,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물 지하 1층에는 전주역 주변의

부족한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98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지상 1층에는 혁신거점시설인 대중교통 복합환승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인근 전주역과 연계해 전주의 관광 기능이 강화돼 역세권 재생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으로 연결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이 건물 지상 2층~6층까지는 투어리스트 라운지와 관광안내소, 관광유관기관 사무실 등 통합관광센터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전주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늘 착공식이 전북 유일의 관광거점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이곳을 전북교통의 허브이자 동부권 관광 랜드마크로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이 미래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전주의 새로운 관문을 여는 첫 시작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옥기기자

## 청년 자살 예방사업 네트워크 구축

###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전주비전대 진로심리상담센터 협약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보영)는 8일 전주비전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와 생명 존중 문화 조성과 청년 자살 예방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최근 늘어난 대학생들의 우울증과 자살 문제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학생들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비전대학교 학생들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

당·치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캠페인 및 자살 예방 교육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 20대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 2021년 22.7명에서 2022년 19.9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전주시 지역사회 건강통계'에서는 20대의 우울감 경험률이 지난 2022년 2.8%에서 지난해 13.1%로 전년 대비 4.5배 이상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보영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은 "청년들의 경우 진로 문제와 취업난 등



전주시와 전주비전대학교가 청년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희망의 부재로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선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살 위기에 놓인 청년들이 희망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전주시보건소도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모집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오는 7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모집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신청 요건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법 위반행위가 없을 것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정기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등이다.

특히 우수업소로 선정될 경우 해당 영업장에 우수업소 현판 부착과 함께 2년간 화재안전조사·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가 민간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희망업소는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7월 31일까지 전주완산소방서 예방안전과(063-220-4243)에 제출하면 된다.

/김옥기기자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 전북기념식 및 이세종 열사 추모식. 사진은 지난 해 열린 기념행사.

## 민중항쟁기념 전북행사위, 각종 행사 연다

### 5·18민주화운동 첫 희생자 이세종 열사 기념 행사 등 진행

이세종 열사가 작년 말 5·18민주화운동 첫 희생자로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세종 열사가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의 살인적인 폭력에서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 옥상에서 내뿜은 희생당한 지 44년 만이다.

이로써 전북대학교와 전북자치도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진원지와 성지라는 사실이 비로소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공주와 전남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북을 비롯한 전국적인 항쟁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재정립했다.

이를 계기로 전북지역 시민사회, 기관단체들이 총결집하여 민중민주항쟁기념 전북행사위원회를 조직했다. 올해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기념행사를 도민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펼치고자 한다. 캐치프레이즈는 2024 전북민주주의행동 '모두의 4월, 하나 되어 5월에서 6월로'이다.

민중항쟁기념 전북행사위원회는

5월 17일~31일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전북지역 곳곳에서 각종 행사를 연다.

민중민주항쟁 기념사업의 현재성과 실천성을 높이기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 조직 결함을 추진하여 지역 외계 대중화에 기여하고, 청년세대와 도민 참여의 결집력을 높여 항쟁 정신의 세대 계승과 기념사업의 역동성을 구현하는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 첫 희생자 이세종열사를 기리고 기념하는 '이세종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전북지역 160여 시민사회,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4월에 이어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 전북행사위원회'를 구성하며, 기념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위원회는 "공동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 청년서포터즈 체계로 사업계획, 재정, 사업평가를 공유하여 향후 전북민주화운동 기념계승 사업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 전주시설공단,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공단 운영사업 관련 주요 정책,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으로, 공단의 주요 정책 및 수익 창출 아이디어 사업, 체육시설이나 공영 등 공단 각 시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 또는 적은 예산으로 시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시설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제안하면 된다.

단순 행사성 사업, 1년 이상 지속되는 계속사업, 특정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 특정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안사업의 사업비는 5000만 원 이내여야 한다. 단 5000만 원이 넘는 사업이라도 필요하다면 전주시에 사업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모 제안서는 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장에서 구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제안서는 담당자 이메일(bk21leo@jss.or.kr) 또는 우편(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0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략경영부)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옥기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